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투석 방식에 따른 동반질환 유병률 비교: 말기신부전 대상 다기관 연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

권오연 · 박자용 · 진미경 · 홍경득 · 조장희 · 최지영 · 윤세희 · 박선희 · 김찬덕 · 김용림

Comparison of Comorbidity prevalence by Dialysis Modality in ESRD: Cross-sectional Study of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End Stage Renal Disease

Owen Kwon, Ja-Yong Park, Mi-Kyung Jin, Kyung-Deuk Hong, Jang-Hee Cho, Ji-Young Choi
Se-Hee Yoon, Sun-Hee Park, Chan-Duck Kim, Yong-Lim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End Stage Renal Disease

목적: 투석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및 당뇨 등 동반 질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하고 있는 구환 및 신환에서 투석방식에 따른 동반 질환의 빈도 및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말기신부전 환자 생존을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의 말기신부전 대상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 등록된 유지투석환자 2231명 중, 의무기록 조회로 동반 합병증 조사가 가능한 환자 1327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등록될 당시와 투석 시작시의 동반질환 유무를 투석 방식에 따라 조사하였다. 또 758명의 신환에서도 투석방식에 따른 동반질환 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투석 구환 1,327명중 혈액투석 666명 (50.2%), 복막투석 661명 (49.8%)이었고 신환은 혈액투석 540명 (71.2%), 복막투석 218명 (28.8%)이었다. 조사한 동반 질환은 만성폐질환,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심부전, 결체조직질환, 경증 간질환, 중등도 간질환, 종양이었다. 등록 시까지 투석기간은 혈액투석 1786.4일, 복막투석 2660일로 복막투석 환자에서 더 길었다. 투석 시작시 평균연령은 구환 및 신환 각각에서 혈액투석 환자에서 연령이 더 높았다. (구환 혈액투석 53세, 복막투석 48.5세, 신환 혈액투석 57.1세, 복막투석 51.9세)으며, 남성의 비율은 구환에서는 혈액투석에서 더 높았으며 신환에서는 복막투석에서 더 높았다 (구환혈액투석 58%, 복막투석 54.8%, 신환 혈액투석 60.4%, 복막투석 62.4%).

결론: 말기신부전 다기관 연구에 등록된 투석 신환 및 구환에서 혈액투석 환자가 더 고령이었고 동반 질환도 많았다. 투석 구환의 경우 등록 시의 동반질환의 유병률이 투석 시작 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혈액투석 구환의 경우 등록 시 투석기간이 더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막투석 환자에 비해 동반질환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향후 투석 방식에 따른 생존을 분석 시 이러한 동반질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투석, 동반질환

Dialysis, Comorbidity